

고령지 산채류 경관농업을 위한 곶취 ‘다목이’와 혼식용 자생식물 선발

유동림, 김기덕, 서종택, 이영규, 백계영, 이계준, 권 민, 유흥섭, 남정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Selection of Native Plants for Mixed Planting with ‘Damogy’ Cultivar of Gomchwi as Wild Vegetable on Landscape Agriculture in Highland Area

Dong-Lim Yoo*, Ki-Deog Kim, Jong-Teak Suh, Yeong-Gyu Lee, Gye-Lyeong Baek,
Gye-Jun Lee, Min Kwon, Hong-Seob Yu and Jung-Hwan Nam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NICS, RDA, Pyeongchang, Korea

‘다목이’는 일반 곶취를 모본으로 한대리곶취를 부분으로 교배하여 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진 곶취 신품종으로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하였다. 경관농업은 청정 농산물의 생산, 가공과 서비스가 연계된 농업의 6차산업화를 대표하는 농업형태이다. 곶취를 이용한 산채류 경관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다목이’와 자생식물의 혼식을 통한 친환경 생산기술을 개발코자 하였다. 인공상토로 채운 화분에 곤달비와 삼백초, 백리향, 라벤더 등 국내·외 자생식물을 혼식하여 각 식물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을 조사하였다. 삼백초, 라벤더, 이질풀, 율우드, 어성초는 ‘다목이’와 혼식하여 지상부 생체중 214.1~362.4g, 지하부 생체중 171.0~258.5g으로 생육이 대등하거나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생강과 박하는 ‘다목이’의 생육량을 지상부 생체중 90.9~123.6g, 지하부 생체중 54.0~110.3g으로 현저히 감소시켰다. 백리향과 좁쌀바귀, 제충국, 옥잠화는 ‘다목이’에 의해 생육이 극도로 저하되거나 고사하였다. 배초향은 ‘다목이’와 서로의 생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목이’와의 혼식은 경관농업의 목적에 따라 삼백초, 라벤더, 이질풀, 율우드, 어성초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요어: 곶취, 자생식물, 혼식, 경관농업